



Delicious Chicken

스팀오븐에서 기름 짝~ 빠진 맛있는 통곡이 치킨

'미닭' 교대점



조 해인 기자

배고픈 직장인에게 증기구이 닭고기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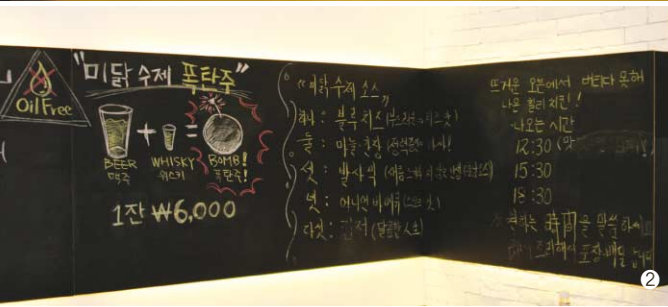
퇴근길에 지하철 역 앞에서 배포되는 무료 석간신문을 집어들었다. 하루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다가 신문 하단에 눈에 띄는 광고를 하나 발견했다.

'200℃ 수증기로 구워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웰빙치킨'

증기에 익어가는 누런빛의 닭고기를 보면서 영양센터를 떠올렸다.



1



2



3



4

- 1 벽면 한쪽에 닭과 관련된 사진과 그림을 배치해 이색적이다.
- 2 매장 내부에 칠판을 설치해 메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3 커리 볶음밥이 가득 채워진 '오븐통구이칠리치킨'
- 4 닭가슴살에 야채가 어우러진 '치킨랩'

지하철 신문에 대기업 광고가 아닌 음식점 광고가 실린 것이 신기했지만, 오히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배고픈 직장인에게는 어느 제품보다 음식점 광고가 적격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수증기구이 닭, 요즘 광고하는 스팀오븐을 이용해 구운 닭고기라면 담백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았다. 결혼 후 다이어트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서 체중이 불고 있는 것도 걱정이 되었고 맛집을 찾던 중에 이번 달 맛집에 낙찰, 지하철 광고를 뜯어내 수첩에 넣었다.

교대역 4번 출구에서 헤맬 수 있다

어느날 저녁, 전화를 걸어 '미담'을 찾았다. 교대역 4거리에 가깝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무지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 전화를 해 물어도 길안내를 잘 못하는 점원도 찢찢매고, 죄없는 삼풍치킨 근처에서 10여분을 헤매다 새로 생긴 크고 깔끔한 사무동 건물 1층에 있는 미담을 발견했다. 오! 이럴 수가.

꽃미남 직원들의 치킨 카페 '미담'

동네 영양센터 쪽으로 예상했던 생각이 깡그리 날아가 버릴 정도의 세련한 인테리어, 카페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감각있는 파란색 닭문양 간판까지. 미담은 치킨요리 카페라고 할 정도로 감각있어 보인다. 게다가 서빙하는 직원들도 꽃미남이다.

매장을 들어서서 메뉴를 살피고 주메뉴인 '오븐통구이칠리치킨'과 '치킨랩'을 주문했다.

좁은 매장이지만 천장이 높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전혀 답답하지 않고, 테이블도 마치 카페에 온 듯 깔끔하고 모던하다.

또 매장 내부에 칠판을 설치해 아기자기하게 메뉴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고 그림도 그려 넣었다. 한쪽 벽에는 닭과 관련된 사진과 그림을 이색적으로 배치해 인상적이다.

필자가 찾았던 여느 닭고기 요리집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터라 감탄에 감탄을 하는 동안 통구이 치킨이 나왔다.

스팀오븐에서 기름 짝 빠진 맛있는 통구이 치킨

하얀 도자기 그릇에 노릇노릇 구워진 탐스러운 닭고기가 너무 먹음직스럽다. 그러나 우선 사진을 찍고, 칼집이 들어간 사이로 수저를 넣어 벌려보니, 닭의 배속엔 치즈가 뿌려진 커리 볶음밥이 가득 채워져 있다.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닭고기 가슴살 한 점을 먹어본다. 바삭 거리는 닭껍질은 종잇장처럼 얇게 기름이 빠져 바삭하고 고소하다. 튀긴 닭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필자는 원래 껍질을 먹지 않는 데, 이 통구이 치킨은 알팍한 껍질을 찾게된다. 증기로 구운 만큼 속살은 촉촉하고 부드럽다. 정말 웰빙닭이다.

이번엔 커리볶음밥을 먹어본다. 닭 크기를 감안할 때 2명이 먹기엔 부족할 것 같아 치킨랩을 주문했는데, 볶음밥 양이 많아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닭고기와 함께 나오는 소스도 일품이다. 먹는데 정신이 팔려 미쳐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맛을 보니 간장소스와 마늘소스인 것 같다. 부드럽고 촉촉한 닭고기를 찍어먹어도 좋고, 볶음밥에 비벼먹어도 좋다. 곁들여 나오는 마늘



포장용기도 깔끔하고 색다르다.

종과 무 초절임도 유명한 스파게티 가게 못지 않게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

'닭 나오는 시간'에 오세요!

스팀오븐에 조리하는 시간이 50분 정도. 그래서 예약은 필수다. 예약하지 못할 경우에는 닭 나오는 시간에 방문하면 좋다. 닭 나오는 시간은 12:30, 15:30, 18:30이니 시간에 맞추면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닭을 먹을 수 있다. 대신 통구이가 아닌 조각치킨은 2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다양한 메뉴

치킨랩은 배불러 먹지 못하고, 포장해가서 다음날 아침 대용으로 먹었다. 싱싱하고 아삭한 야채에 머스터드 소스로 버무린 닭가슴살이 알싸하게 맛있다. 특히 치킨랩의 2/3 이상이 싱싱한 야채로 살짙 염려 전혀 없고, 느끼함은 제로다.

카페 같은 분위기, 굳이 닭고기가 아니더라도 통감자구이, 감자구이, 이색적인 야채샐러드 등 간단한 음식과 옥수수차, 맥주, 커피 등 다양한 음료를 준비하고 있다.

교대역 4번 출구에서 지파이프 센트럴플라자 102호를 찾자. 못 찾겠다면 (02)552-6856 번을 누르자. 📍